

장수군 복지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장수군-장수군지사협-사회복지협의회, 복지안전 오지마을 복지마차 사업 추진 협약

장수군은 지난 27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안전 오지마을 복지마차'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복지 안전 오지마을 복지마차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마을별 인적안전망을 구성해 정기적 마을(가구) 방문을 통한 지역예찰 및 소모성 안전 물품 배부 등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장수군과 장수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세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내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장수군은 지원 물품 구매 및 예산관리 사후정비 등 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운영지원을 하게 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교육활동, 대상자 선정심사,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장수군은 지난 27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안전 오지마을 복지마차'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는 대상 지역 예찰 및 지원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군은 10월 중 소모성 안전 물품 구매를 완료하고 수시로 복지마차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민 모두가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안전 서비스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소 렘피스킨병 차단 방역 총력

무주군, 백신접종 지원반 편성·사전 교육·방역소독 등 진행

소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렘피스킨병'이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도 '소' 지키기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전체에서 사육 중인 소는 총 9천여 마리(240 농가)로, 소 렘피스킨병 청결을 막기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축방역팀을 주축으로 백신접종 지원반을 편성하고 사전 교육(접종 요령)을 실시하는 등 백신 확보 후부터 예정된 접종에 대비하고 있다.

또 파리와 모기 등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감염 취약지(가축사육장 주변, 물 웅덩이) 등지에도 방역소독을 실시 중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소 렘피스킨병이 모기와 파리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방역이 필요

하다"며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무주 실현을 위해 홍보와 교육은 물론, 예방접종과 방역 등 방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가에서는 농장과 주변 기구에 대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의심축 발견 시에는 즉시 가축방역팀(063-320-2820)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렘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소에게만 감염(폐사율은 10% 이하)이 되며 고열과 피부 결절 증상(우유 생산량 감소, 유산, 불임 등)이 나타난다.

렘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발표에 의하면 국내에는 지난 19일에 최초 발생된 이후에 26일 기준 경기도와 충남, 충북, 강원, 전북, 인천에 위치한 축산농장 등 총 47곳이 확진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9회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가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태권도 성지 무주에서 개최됐다.

제19회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 성황리 개최

'제19회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이하 웰빙태권도 축제)'가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태권도 성지 무주에서 개최됐다.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된 웰빙태권도 축제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에서 주관한 가운데 전국에서 초·중·고·대학·일반·장년·시니어부 1,061명이 출전했으며 시범(팀 대항 종합경연 / 태권체조) 및 품새(자유품새 개인전), 격파(개인종합 격파 / 높이뛰어 격파 / 멀리뛰어 격파), 품새 및 태권체조, 화합경연 품새(가족·사제·사람부 복식 단체전) 경기에서 자유를 겨뤘다. 또 시니어부 참가자 등 태권도인으로서 품격과 대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선보이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28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전북 일보사 강정원 체육부장과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정승훈 교수가 태권도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 성지 무주를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 감사패를 받았으며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이 전북 일보사에서 주는 공로패를 받았다. 황인홍 군수는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태권도원을 품고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매진하고 있는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군은 웰빙태권도 축제 개최지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국민보급형 태권체조와 시범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기회가 될 거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크다"며 "태권체조가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와 봄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무주군도 역량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선정된 주민들이 5월부터 활동해 온 성과를 전시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오후 7시부터는 인근 주민들과 함께하는 풍요리 성과 발표회 공연이 이루어진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을 사랑하고 지역문제에 대해 그동안 고민해 온 우리 주민들의 활동을 선보이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마을·주민동아리 성과공유회 31일 개최

장수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장수지역활력센터가 주관하는 '2023년 마을·주민동아리 성과공유회' 행사가 오는 31일 장수읍 행복나눔터에서 개최된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시·군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능기부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20여 개 주민동아리 신청을 받아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9개 동아리가 선정돼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선정된 주민동아리들이 5월부터 활동해 온 성과를 전시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오후 7시부터는 인근 주민들과 함께하는 풍요리 성과 발표회 공연이 이루어진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을 사랑하고 지역문제에 대해 그동안 고민해 온 우리 주민들의 활동을 선보이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재가암환자 건강 프로그램 호응 속 마무리

진안군은 10월 한 달 동안 총 4회에 걸쳐 추진한 2023년 하반기 재가암환자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성료했다.

하반기 재가암환자 건강관리프로그램은 재가암환자와 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상자들의 정서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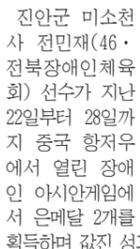
교육은 전북대 의과대학 영정호 교수의 암예방 및 건강관리 교육을 비롯해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웃음치료와 비디워시 만들기, 원에 액자만들기 등 짜임새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유익한 강의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힐링을 도모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암 환자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신체·정서적 건강도모를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미소천사 전민재, 은메달 2개 획득

장애인 아시안게임 육상 종목서... 파리 장애인올림픽도 출전키로



진안군 미소천사 전민재(46·전북장애인체육회) 선수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값진 성과를 거뒀다.

한국 대표 장애인 육상 선수인 전민재 선수는 육상 200m(T36) 경기에서 2위(31초27)를 기록해 대표팀에 첫 메달을 선사한데 이어 육상 100m(T36)

경기에서도 15초26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2위를 하려 또 한번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민재 선수는 여자 장애인 육상 종목의 전설적인 선수로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에 첫 출전한 이후로 제14회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200m 은메달, 제15회 리우데자네이루 장애인올림픽에서 200m 은메달을 획득했고 패럴림픽 대회 이외에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안 패러게임 등에서 많은 메달을 대한민국에 선물했다.

진안군 진안을 반월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민재 선수는 어린 시절 원인

모를 뇌염을 앓은 후 뇌성마비로 인해 장애를 앓게 됐으나 선수의 피나는 노력과 어머니(한재영·72)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장애를 극복했다.

특히 진안군의 지원과 전북장애인체육회의 특훈을 통해 최선을 다해 연습에 매진했고 결국에는 한국 장애인 육상의 전설적인 선수로 성장하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한편, 전민재 선수는 당초 이번 아시아경기대회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고려했으나 주변의 권유와 설득으로 내년도에 열리는 파리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할 계획을 밝혀 다시 한 번 국제무대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2회 진안 사회적경제박람회 열려

진안군은 지난 27일 진안만남센터(청소년수련관입구)에서 '제2회 진안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했다.

군이 주최하고 관내 30개 기업·단체가 함께하는 진안박람회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필

두로 귀농귀촌지원센터, 마을만들기센터 등 공동체조직과 기업·단체가 함께한 통합박람회로 열려 더욱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기념식과 지역소멸대응 포럼, 플리마켓,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 사회적 단체 및 기업은 우리

지역 공동체 전반에 대해 알리기 위해 홍보관도 함께 운영했다.

포럼은 연안대 채상현 교수의 발제로 '지역소멸에 따른 귀농귀촌의 필요성'과 달빛정류장협동조합 대표 이근우 등의 발제로 '진안청년, 그들이 사는데'에 대해 진행돼 심도 있는 지역과 청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2023 진안군 일자리 만남의 날'도 함께 개최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더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